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유 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첼로 입문자 교본 연구: 새로 출시된
Helga Winold의 《Cello City》를
중점으로 연구

- <Suzuki Cello School> 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 비교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장 민 형

첼로 입문자 교본 연구: 새로
출시된 Helga Winold의
《Cello City》를 중심으로 연구
- 〈Suzuki Cello School〉 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 비교 -

김 유 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장 민 형

인 준 서

장민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임 경 원 (인)

심사위원 김 도 연 (인)

심사위원 김 유 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한국에서 아직 출간되지 않은 새로운 첼로 교본인 헬가 위놀드(Helga Winold)의 《Cello City》 교본과 현재까지 첼로 지도자들이 첼로 입문자들에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이치 스즈키(Shinichi Suzuki), 의 《Suzuki Cello School》(스즈키 첼로 교본)과 사무엘 아플레바움(Samuel Applebaum)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을 비교하였다.

먼저 헬가 위놀드는 현존하는 인물로서 지금까지도 후학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첼리스트이자 지도자이다. 그녀는 50여년 가까이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첼로를 배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하는 테크닉 연습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Cello City》 첼로 교본을 집필하였다. 헬가 위놀드는 《Cello City》를 그녀가 운영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s://www.winoldsmusic.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료를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교본은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4 Part로 나뉘져 있으며, 각 Part당 첼로 연주에 가장 필요한 테크닉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1943년에 만들어진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과 1960년대에 제작된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 두 교본은 기본 테크닉이나 짧은 연습곡 또는 긴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이올린 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졌다.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은 쉬운 곡으로 시작하여 4권부터는 본격적으로 첼로의 소나타나 콘체르토 등의 악보가 삽입되어 있으며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연습 5권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곡, 이중주 곡 등이

담겨있는 5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Suzuki Cello School》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첼로 교본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집필된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첼로 교본은 아직 한국의 첼로 지도자와 입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여 본 연구자는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를 중심으로 《Suzuki Cello School》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를 비교함으로써 각 첼로 교본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하고 첼로입문자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 이 교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Cello City》	4
1) Part One	6
2) Part Two	12
3) Part Three	22
4) Part Four	24
2. 《Suzuki Cello School》 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 의 간단한 연구	34
1) 《Suzuki Cello School》	34
2) 《String Builder Book - Cello》	39
3.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 교본의 총괄적 분석	44
III.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6

악보 목차

<악보 1>.....	7
<악보 2>.....	9
<악보 3>.....	11
<악보 4>.....	12
<악보 5>.....	16
<악보 6>.....	17
<악보 7>.....	18
<악보 8>.....	19
<악보 9>.....	21
<악보 10>.....	23
<악보 11>.....	25
<악보 12>.....	26
<악보 13>.....	28
<악보 14>.....	29
<악보 15>.....	31
<악보 16>.....	32
<악보 17>.....	33
<악보 18>.....	36
<악보 19>.....	37
<악보 20>.....	40
<악보 21>.....	42
<악보 22>.....	47

사 진 목 차

<사진 1>	14
<사진 2>	14
<사진 3>	30

I. 서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전공을 시작 할 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깊게 연구해 나아가기가 어렵다. 악기를 배우고 익히는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첼리스트들에게 음계와 아르페지오의 연습은 정확한 음정,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다.¹⁾ 현재까지 처음 첼로를 시작하는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신이치 스즈키²⁾의 《Suzuki Cello School》과 사무엘 아플레바움³⁾의 《String Builder Book-Cello》, 요제프 베르너의 《Werner Violoncello School》등 이 3가지 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음악의 본거지인 독일 등에 더 많은 악보와 자료들이 있지만 초보자가 쉽게 접하거나 악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첼로 입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첼로 테크닉 교본의 필요성을 갈망하고 있을 때 필자는 가장 최근에 집필된 2011년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라는 교본을 접하게 되었다.

《Cello City》 책을 펴낸 헬가 위놀드(Helga Winold)는 첼리스트이자 미국 제이콥스 음악 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Jacobs School of Music University Graduate School)의 교수이다. 로렌스 허스트 교수는(Lawrence P. Hurst)⁴⁾ “그녀는 첼로의 레퍼토리와 연주 방법 그리고 첼로 교육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으며, 무수한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첼로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였다.” 라고하며 그녀의 열정적인 첼로 연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1) 현민자, 「첼로를 위한 음계와 아르페지오」 서울: 음악춘추사 2000, 서문

2) 일본의 바이올린 교수로서 60 여 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본을 저술하였다.

3) 교육자이자 스트링 빌더 저자 1960년 교재 탄생 (스트링빌더 교본지도서 감수자의 글)

4) 베이스스트럼 제이콥스 음악 학교, 현악 학과장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인디애나 대학교 제이콥스 음악 대학교(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의 1회 졸업생인 헬가 위놀드는 50년 동안 탁월한 연주자이자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활동해 왔다. 그녀는 첼로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첼로의 변천과 그에 따른 연주 방법을 연구하여 문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문헌은 첼리스트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스, 금관 연주자 등 제이콥스 음악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들에게 음악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그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주 테크닉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향상 시키는 탁월한 스승이다.” 라고 야노스 슈타커(Janos Sutaker)⁵⁾는 말했다. 이렇게 그녀는 첼로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 지도에 대해 열정이 가득했다.

헬가 위놀드는 미국과 아시아 및 유럽 전역에서 솔로 및 실내악 연주를 해온 매우 존경받는 연주자임과 동시에 첼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연구자였다. 그녀는 현악기 연주자의 움직임 분석과 사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그녀와 에스더 테렌(Esther Thelen)⁶⁾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첼로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분석하였고 그 분석한 내용이 ‘The Journal of Ecological Psychology’와 같은 과학 저널에 등재되어 학문 분야의 개선 및 뇌와 신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의학과 음악의 융합 교육으로 이끌었다. 헬가 위놀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음악 대학(Freiburg University of Music)의 음악 및 의학 연구소의 컨설턴트이기도 하였다.

헬가 위놀드가 IU에서 은퇴한 뒤 여러 오케스트라와 인디애나 대학교 제이콥스 음악 대학(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사우스 플

5) 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교수 역임, 헬가 위놀드의 스승님

6) Indiana University 심리학 교수

로리다 대학교(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프라이부르크 음악 대학(Freiburg University of Music)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며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Cello City》 교본은 2011년 헬가 위놀드가 자신의 50여년 가까이 되는 첼로 연주와 첼로 교육학을 바탕으로 완성되었으며 이 교본은 웹사이트 'https://www.winoldsmusic.com'에서 누구든지 항상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본 첼로 교본은 낮은 포지션 및 엄지 포지션을 처음 익히기에 좋은 첼로 입문 교본으로서, 어떤 순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첼로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ello City》가 바이올린 테크닉에 중점이 되어 만든 《Suzuki Cello School》, 《String Builder Book - Cello》와 다른 점은 연주 할 때 팔이 모든 포지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반복 연습하게 한다. 또한 줄을 동시에 긋고 두 음을 한 번에 잡아서 소리 내는 화음 연습에 있어서 왼손이 가볍고 손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적인 포지션 이동 연습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한 줄에서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Part 1 부분에 긴 음 활 긋기 연습을 강조하였다. 엄지 포지션 연습은 높은음자리표와 가온음자리표로 나누어 가온음자리표에서 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복 연습 하게 구성하였다.

지금부터 처음 소개되는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교본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 이를 중심으로 첼로 교본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Suzuki Cello School》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Ⅲ. 본 론

1. 《Cello City》

《Cello City》는 헬가 위놀드의 5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첼로 입문 교육을 위한 교본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여러 연습 방법은 첼로 연주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첼로의 낮은 소리에 속하는 C선과 G선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이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G선과 C선은 첼로를 처음 시작하면서 줄긋기 연습을 할 때 활 잡는 모양이나 자세를 편안하게 연습 할 수 있고, 악기의 풍부한 베이스 소리로 인해서 학생들의 귀에 첼로 소리를 익숙하게 하는 선들이기 때문이다.

왼손을 위해 제시된 곡들은 자연스럽게 첼로의 특성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0, 1, 3, 4’번 손가락 움직임(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 사이가 반응), 그리고 ‘0, 1, 2, 4’번 손가락 움직임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 사이가 반응), 마지막으로 ‘벌림 0, 1, 2, 4’ 번 손가락 움직임을 소개한다(이 손가락 사이에는 반응이 없으며 1번과 2번 사이를 벌린다). 각각의 손가락 움직임은 첼로의 포지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 있고, 연속적인 음정 및 효과적인 Scale(스케일), Broken Thirds(펼침3화음-아르페지오)⁷⁾, Triad(3화음⁸⁾으로 학습한다.

《Cello City》에 사용 된 곡은 교육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 관심과 친숙한 곡들로 구성되어있다. 대부분의 곡들이 미국의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문화권의 음악들도 있다. 본 교본은 많은 캐

7) 화음을 구성하는 음이 동시에 연주되지 않고 분산해서 연주 되는 형으로 아르페지오형 이나 빠른 패시지 형으로 나타난다.

8) 어떤 음과 그 위의 5도와 3도, 즉 3도의 겹침으로 된 화음.

논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곡의 앙상블 연주를 통해 악기 연주가 즐겁다는 것을 초보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즐거운 교수방법을 의도하고 있다.

《Cello City》는 총 4 Part로 나누어져 있는데 Part One은 제1포지션, Part Two 는 엄지 포지션(높은음자리표 중심), Part Three는 엄지 포지션(가온음자리표)⁹⁾중심을 연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rt Four는 Shifting¹⁰⁾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파트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9) 오선지 4째줄에 씌어진 C(도)음자리표. 4째줄이 1점 '도'음이 되고 테너의 성역을 적는데 편리한 보표.

10) 현악기 또는 트롬본의 연주에 있어서의 포지션 이동. 현악기는 지판상의 왼손가락 이동.

1) Part One

Part One은 활의 균형을 잡기 쉬운 중간 부분에서 주어진 곡에 적합한 활발하고 경쾌한 박자의 빠른 리듬 패턴으로 연습을 시작한다. 이러한 짧고 빠른 리듬 패턴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처음 활을 잡고 소리를 내기 시작 할 때 긴 음들을 지속적으로 길게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리해서 긴 음 연습을 시도 하는 것 보다 짧은 리듬 패턴 연습을 통하여 리듬 연습과 활 쓰기를 익숙하게 한 다음 긴 음들을 연습한다면 활을 유연하게 잘 쓸 수 있다.

Part One에서는 팔을 더 풍부하게 사용한 활 분할 연습도 포함된다. 여러 리듬 연습 중 2가지를 살펴보겠다. <악보 1>의 1. Rhythm Tunes 연습은 리듬 음악 연습으로 서로 다른 리듬에 단어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입으로 소리 내어 리듬을 더 쉽게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 악보에는 영어로 적혀 있지만 한글로 변경하여서 그 리듬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준다. 예를 들어 <악보 1>의 1-A의 경우 ‘Jin-gle Bells Jin-gle Bells’을 ‘종소-리 울려-라’, 1-B의 경우에는 ‘One lit-tle Two lit-tle’ 대신 ‘한 꼬-마 두 꼬-마’, 1-C의 경우에는 ‘I’m a lit-tle tea-pot’를 바꿔서 ‘자동차가 빵빵’ 등 학생들이 한글로 알기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서 리듬을 익숙하게 연습한다. <악보 1>의 2. Rhythm Tune(with three different bowings)는 같은 리듬의 연습을 3가지의 다른 버전의 활로 연습 할 수 있다. <악보 1>의 1과 같이 <악보 1>의 2 에서도 음표 밑에 적혀 있는 단어들을 바꿔서 연습해 본다.

<악보 1>

1. Rhythm Tunes

A. B. C.

Jin - gle Bells Jin - gle Bells One lit - tle Two lit - tle I'm a lit - tle tea - pot
 종 소 - 리 울 러 - 라 한 - 꼬 마 두 - 꼬 마 자 동 차 가 빵 - 빵

2. Rhythm Tune (with three different bowings)

A. B. C.

I'm a lit - tle tea - pot I'm a lit - tle tea - pot I'm a lit - tle tea - pot

이러한 짧은 활 분할 연습을 활 중간 부분에서 잘 익히면 같은 리듬 패턴을 활 포인트(윗부분)에서도 연주 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초보자들이 처음 첼로를 시작해서 리듬을 접할 때 모든 리듬을 한 번에 익히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선생님들은 학생이 학습하는 동안 적절한 때에 부족한 리듬 부분을 책 안에 있는 리듬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리듬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음정이나 가사 등을 생각하며 곡을 익힌다면 그 다음 박자, 빠르기, 셈여림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다. 그 후에 학생들이 곡을 연주하는 음악적 경험을 갖게 되면, 악보의 표기되어 있는 음악 기호나 악상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과 기술적인 기량이 성장함에 따라 악보를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슨과 앙상블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 다음 연습은 하모닉스이다. 하모닉스를 소개하기 전에 이 교본은 하모닉스 곡과 손가락 이동이 많은 음에 대한 손가락 번호를 제외하고는 책에 운지가 거의 없다. 손가락 번호가 써져 있으면 학생들이 음정을 알고 표기법을 배우는 대신 손가락 번호를 눈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이 교본에서 곡의 속도 표시나, 악상 기호 또는 연주 기호들이 악보에 제공되지 않아도 학생의 능력과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곡에 맞게 다양한 악상 기호와 여러 가지 속도로 연습해 본다.

<악보 2>의 10. Old MacDonald 곡을 살펴보면 4번째 마디 마지막 박자 위에 ‘V’ 표시 말고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1마디부터 8마디 까지 반복 되는 두 부분의 악상 처음에는 F 로,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은 P 로 또는 반대로 연주 해 본다. <악보 2>의 11. All the Birdies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각 활로 연습해 보았다가 음악이 익숙해지면 첫 마디 3, 4번째 음처럼 같은 박자로 되어있는 음을 Slur로 연결시키거나, 5마디부터 8마디

까지 반복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악상으로 연주해 보도록 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연습해 볼 수 있다.

<악보 2>

10. Old MacDonald

Musical notation for 'Old MacDonald' in bass clef, 2/4 time signature. The first staff contains the main melody with a 'v' marking above the eighth note of the first measure. The second staff contains a rhythmic accompaniment pattern of eighth notes.

11. All the Birdies

Musical notation for 'All the Birdies' in bass clef, 4/4 time signatur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It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학생들은 자신들의 테크닉 역량에 따라 주어진 곡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과 다양성을 가지고 선율을 연주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호 표시가 없는 이유는 원래 곡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활 쓰임과 손가락 번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으로 각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박자표기에 정해진 뜻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율을 표현 할 때 정해진 뜻 외에 악보에 있는 Bowing 또는 악상에 따라 표현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악보 3>에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이 연습은 Adagio부터 Allegro까지 같은 선율을 다양한 빠르기로 익혀본다. 또한 악보에 쓰여 있는 박자표기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집어넣어 표현 해봄으로써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악보 3>에서 Moderato의 경우 1. Moderato는 보통 빠르기로 크게 연습하지만 7. Moderato는 보통 빠르기에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crescendo를 연습한다. 8. Moderato는 보통 빠르기로 점점 작아지면서 diminuendo를 익힌다. Allegro도 3가지로 연습이 된다. 2. Allegro는 빠르고 크게 6. Allegro는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는 음이 하나씩 나뉘져 있어 한 음씩 크게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마디는 Slur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부드럽게 연주한다. 10. Allegro는 빠르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느리게 연주하는 ritardando를 익힌다. Adagio도 2가지로 연습하게 되는데 3. Adagio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9. Adagio는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빠르게 accelerando를 연습한다. 같은 빠르기이지만 여러 가지 기호를 넣어서 연주 할 수 있다. 4. Pesante에서 ‘<’ 표시가 한 음씩 강조하는 엑센트 기호이므로 매우 크게 그리고 각 음에 엑센트를 준다. 5. Andante Grazioso는 보통 빠르기로 우아하게 그리고 스타카토는 부드럽고 짧게 연주한다.

<악보 3>

1. *Moderato* (Moderately fast and moderately loud)
mf

2. *Allegro* (Fast and loud)
f

3. *Adagio* (Slowly and softly)
p

4. *Pesante* (Very loudly and accented)
ff

5. *Andante Grazioso* (Moderately slow and gracefully, very softly and short)
pp

6. *Allegro* (Fast. Alternately loud with separate bowings and soft with slurs)
f *p* *f* *p*

7. *Moderato* (Moderately fast and gradually louder) *crescendo*
pp *p* *mf* *f* *ff*

8. *Moderato* (Moderately fast and gradually softer) *diminuendo*
ff *f* *mp* *p* *pp*

9. *Adagio* (Slow and gradually faster) *accelerando*
f

10. *Allegro* (Fast and gradually slower) *ritardando*
f

2) Part Two

Part Two 와 Part Three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에는 없는 포지션으로 엄지를 지판에 올려 소리를 내는 엄지 포지션 테크닉이 소개된다.

첼로의 기본 자리표는 낮은음자리표이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낮은음자리표만 읽으면 문제가 없지만 진도가 나아가고 학생의 실력이 상승 할 때마다 음표가 많아지면서 음의 높낮이도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가온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를 정확하게 익혀야 더욱 다양한 음역대의 많은 곡을 연주할 수 있다.

Part Two에서는 높은음자리표 Part Three에서는 가온음자리표를 중심으로 엄지 포지션 연습이 진행된다. 두 파트 모두 공통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올리라는 뜻의 표시를 'Q' 로 악보에 표시되었다.

<악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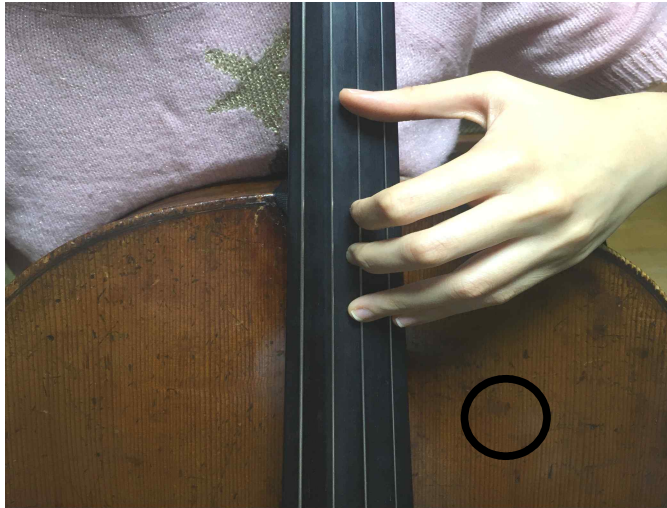
The musical score for Exercise 4 is written on five stave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circled 'Q' above the first note. The second staff has 'Q' marks above the first and second notes of each measure. The third, fourth, and fifth staves also have 'Q' marks above the first and second notes of each measure.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on the fifth staff.

엄지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다. 엄지 포지션은 첼로의 목 뒤에서 받치고 있던 엄지가 지판위로 올라와 누르거나 줄에 살짝 걸쳐 하모닉스로 소리를 내는 포지션으로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포지션이다. 엄지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엄지의 손가락 모양인데 올리기만 해도 하모닉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정이 있지만 엄지로 줄을 누름으로써 소리가 나는 포지션도 있다. 엄지의 손 모양은 제1포지션과 제4포지션에서 첼로 목 뒤에 둥글게 잡고 있던 엄지가 둥근 손 모양을 유지하고 그대로 지판위로 올라간다. 손을 위에서 보았을 때 엄지 끝 부분에 나와 있는 뼈가 튀어 나오면 바르게 잡은 것이다. 음을 누를 때에도 손모양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진 1>이 올바르게 잡은 엄지 포지션의 손 모양이다. <사진 2>는 올바르지 않은 엄지 포지션의 손 모양이다. 손가락은 모든 신경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엄지 포지션의 손 모양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음정을 누른다면 나머지 1번, 2번, 3번 손가락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다.

처음 엄지 포지션을 익힐 때 같은 손 모양으로 유지하면서 음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것은 어렵지만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포지션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올바른 손 모양으로 연습해야 된다. 누를 때 손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며 첼로 줄이 엄지손가락 첫째마디를 넘지 않게 잡아야 한다. 그 위치가 가장 음을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다.

<사진 1>



<사진 2>



Part Two는 높은음자리표 중심으로 되어있는 엄지 포지션 연습이다. 높은음자리표로 음정 읽는 연습을 하면서 엄지 포지션의 다양한 스케일과 손가락 움직임의 패턴을 가르쳐 준다. 또한 Scale과 함께 엄지 포지션 연습은 공통적으로 엄지 포지션의 손 위치와 손 모양을 쉽게 익히도록 귀에 익숙한 곡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Part Two에서는 엄지 포지션에서 다양한 Scale로 손가락 패턴 연습을 반복하도록 구성되었다.

손가락 패턴은 Major(메이저) Scale<악보 5>, Dorian(도리안) Scale<악보 6>, Phrygian(프리지안) Scale<악보 7>, Lydian(리디안) Scale<악보 8>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저자는 주어진 Scale의 구성에 알맞은 간단한 곡들을 삽입하여 한 엄지 포지션에서 익힌 패턴을 곡에 적용하게 하고 학생들은 짧은 곡을 완성함으로써 엄지 포지션을 지루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악보 5>의 Major Scale 1. D Major Scale(thumb position)에서는 첫 마디의 엄지 포지션 ‘레’ 음 위에 엄지를 놓고 하모닉스로 음정을 맞춘 뒤 나머지 손가락을 차례대로 짚는다. 악보에 파#, 도# 조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첫마디 세 번째 음인 파#은 손가락을 반음 벌려 그 다음 음인 ‘솔’에 가깝게 짚는다. 여기서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벌리는 손가락 앞에 ‘X’를 그려주며 손가락 벌리는 표시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이 표시는 어느 포지션에서든지 손가락을 벌리라는 기호이다. 1, 2, 3번의 기본 Scale연습이 끝나면 위에서 배운 포지션을 적용하여 아래 번호에 있는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한다.

<악보 5>

1. D Major Scale (thumb position)

2. D Major Scale in Broken Thirds

3. D Major Triad

4. All My Little Ducklings

5. Mary Had a Little Lamb

6. Mary Had a Little Lamb (variation)

<악보 6>의 Dorian Scale도 1. D Dorian Scale로 위치션을 익힌 뒤 아래의 두 곡을 연주해 본다. 2. Hush, Little Baby의 경우에는 16분음표로 바뀌는 리듬이 엄지 위치션과 함께하면 왼손과 오른손 활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음정을 빼고 활만 리듬 연습을 해 본 뒤 왼손을 함께 연습하면 더 빨리 익힐 수 있다. 3. Shalom(Canon)은 캐논으로 연주 가능하며 학생이 리듬과 위치션이 익숙해지면 선생님과 함께 연주 해 볼 수 있다.

<악보 6>

1. D Dorian Scale

2. Hush, Little Baby

3. Shalom (canon)

<악보 7>의 Phrygian Scale에서는 1. D Phrygian Scale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인 ‘미 b’은 반음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음은 ‘레’를 잡는 엄지 포지션에 1번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야 그 음을 낼 수 있다. 두 번째 마디의 ‘시 b’도 같은 방법으로 짚는다. Scale에 각 음마다 ‘b’이 붙어 있지 않아도 선율을 연주하기 전 앞에 조표를 항상 확인하고 시작한다.

<악보 7>

1. D Phrygian Scale

2. Hot Cross Buns

3. All My Little Ducklings

4. Frères Jacques (canon)

5. Frères Jacques (canon)

The image shows five musical staves. The first staff is titled '1. D Phrygian Scale' and shows a scale in D minor with the first two notes circled. The second staff is '2. Hot Cross Buns'. The third staff is '3. All My Little Ducklings'. The fourth and fifth staves are '4. Frères Jacques (canon)', with the first staff starting at measure 1 and the second staff starting at measure 2.

<악보 8>의 Lydian Scale에서는 조표가 많아진다. #은 b과는 반대로 음정이 올라가므로 1. D Lydian Scale 첫 마디에서는 세 번째 음인 ‘파#’과 ‘솔#’을 반음씩 올려준다. 그러므로 손가락을 벌려서 반음씩 잡아주고 두 번째 마디의 세 번째 음인 ‘도#’ 또한 손가락을 반음 벌려서 잡아준다. 1번에서 배운 Scale을 완벽히 숙지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곡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쉽게 엄지 포지션 연습을 할 수 있다.

<악보 8>

1. D Lydian Scale

2. All My Little Ducklings

3. London Bridge

4. Frère Jacques

Part Two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엄지손가락의 Shifting을 연습한다. 예를 들어 A major(가장조)에서 다른 여러 가지 패턴의 엄지를 위, 아래 움직이면서 연습하도록 구성한다. A Major Scale은 엄지손가락이 지판위에서 모든 위치의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작 음을 다르게 연습할 수 있다.

D(라장조) Major에서는 엄지를 누르지 않더라도 하모닉스 소리가 나는 자리였다면 A Major Scale에서는 엄지로 줄을 눌러야 한다. 엄지를 누르는 힘이 처음에는 부족하여 손 모양이 일그러진다. 시작부터 모든 음정을 무리하게 연습하지 말고 A선과 D선으로 나누어서 음정이 올라가는 처음 부분만 천천히 연습을 먼저 한 뒤 나머지 손가락도 같이 연습해 본다. <악보 9>

<악보 9>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악보 9' (Exercise 9). It consists of seven staves of music, all in treble clef and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D 선' (D line) and 'A 선' (A line). The first section, 'D 선', is marked with a 'Q' and a fermata over the first measure. The second section, 'A 선', is also marked with a 'Q' and a fermata over the first measure. The music is written in a style that suggests a specific performance technique, possibly related to the 'D 선' and 'A 선' labels, which might refer to specific notes or intervals in a scal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slurs across the seven staves.

3) Part Three

Part Three는 가온음자리표를 중심으로 엄지 포지션을 연습한다. Part Three도 마찬가지로 Part Two에서 진행되었던 연습처럼 기본 Scale로 포지션 연습을 익힌 뒤 Part Two에서 높은음자리표로 연습한 곡을 가온음자리표로 반복해서 연습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곡이지만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하여 소개됨으로써 학생들은 그 곡의 음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온음자리표 악보를 보고 조금 더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다.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엄지 포지션의 연습은 엄지손가락의 힘을 강화시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판을 누르고 엄지를 사용해 화음(더블 스탱)¹¹⁾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통하여 손가락을 강화시켜준다. 처음부터 음정과 포지션을 동시에 정확하게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포지션을 익숙하게 익힌 뒤 가온음자리표 음정을 입으로 읽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해야한다. <악보 10>

11) 현악기 또는 건반 악기에서 동시에 많은 음을 연주하는 것.

<악보 10>

- 높은음자리표에서의 엄지 포지션 연습

7. Twinkle, Twinkle



8. Hot Cross Buns



- 가운음자리표에서의 엄지 포지션 연습

7. Twinkle, Twinkle



8. Hot Cross Buns



4) Part Four

Part Four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포지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왼손을 지판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Shifting연습이 주어진다. Part Four의 첫 번째 섹션은 한 손가락으로만 포지션을 이동해보는 연습인데 지판의 절반 이상의 길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Shifting연습은 학생들이 손을 움직일 때 힘을 주고 움직인다. 선생님들은 악보를 보고 연습하기 전에 음정 없이 왼손 팔을 지판에 올려두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움직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Shifting을 하는데 있어서 왼손에 힘을 뺄 수 있게 도와준다.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멜로디로써 곡이 익숙함에 따라 포지션 이동이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손이 자연스럽게 음을 들으며 움직임을 안내 할 것이다. 악보에 표시 되어있는 동그라미 부분들이 같은 손가락으로 Shifting을 하는 부분이다. 다른 음이지만 같은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반복을 통해 손가락이 부드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한다. <악보 11>

<악보 11>

1. All My Little Ducklings (Positions 1-2)

2. All My Little Ducklings (Position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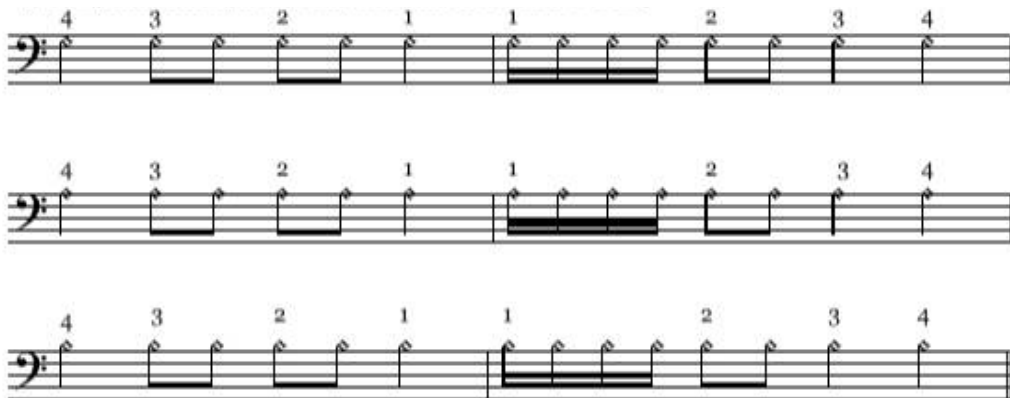
3. All My Little Ducklings (Positions 1-4)

Part Four에서 하모닉스를 이용한 손가락 이동 연습은 손가락을 짚을 때 손가락의 압력을 줄이도록 되어있으며 그 동안 활 압력은 브릿지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하모닉스는 정확한 음정 위치에 손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맑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쇠 소리가 나거나 정확한 음이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음정을 짚어서 바른 음을 맞춘 뒤 하모닉스로 소리 내보도록 한다. 정확한 위치에서 왼손이 현을 건드린다면 명확한 하모닉스가 만들어지며 짚지 않은 나머지 손가락들은 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모닉스 연습은 이 책 및 다른 연습 방법 책과 함께 병행해서 연습해야 한다고 저자는 서술 했다. <악보 12>는 같은 음이지만 손가락 번호를 다르게 해서 연습한다. 손가락을 바꿀 때 힘을 주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Shifting 한다. 처음에 습득 할 때 왼손이 움직이는 동안 활은 멈추어 기다려주고 그 다음 왼손이 정확한 음정에 도달하면 그 때 활과 같이 소리 내어 음정을 맞춘다. 무엇보다도 이 연습에서는 박자는 천천히 하되 손가락의 움직임 속도는 빨라야 한다.

<악보 12>



다음 Shifting 연습으로는 제1포지션에서부터 제5포지션까지 앞에서 배운 곡들과 새로운 곡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패턴이 본문에 제시된다. 이 부분에서 손가락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악보에 손가락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본인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기다림은 학생의 성취감과 본인 기억에 더 오래 남아 다음 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A선과 D선을 중심으로 먼저 연습되고 그 다음으로는 첼로에서 두꺼운 줄에 속하는 C선, G선을 중심으로 제1포지션에서 제4포지션까지의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줄은 나머지 A선, D선에 비해서 굵은 편이어서 다른 줄 보다 꼭 누르지 않으면 또렷하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이 부분을 연습하면서 왼손의 힘도 많이 길러 질 것이다. <악보 13>

<악보 13>

- A선, D선 중심

4. Hush Little Baby

This musical score is for the piece '4. Hush Little Baby' and focuses on the A and D strings.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first staff contains the first four measures, with fingerings 1, 3, 1, 2, 0, 2, and vibrato marks (V) over the final two notes. The second staff contains the next four measures, with fingerings 4, 4, 1, 2, and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Circles highlight the notes in the second measure of both staves.

- G선, C선 중심

4. Hush Little Baby

This musical score is for the piece '4. Hush Little Baby' and focuses on the G and C strings.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first staff contains the first four measures, with fingerings 1, 3, 4, 1, 2, 0, 2, and 2. The second staff contains the next four measures, with fingerings 3, 2, 0, 2, and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Circles highlight the notes in the second measure of both staves.

두 번째는 세 손가락으로 하는 Shifting 연습이다. 예를 들어 1, 2, 3번 손가락 또는 1, 3, 4번, 1, 2, 4번 손가락으로 잡는다. 세 손가락 중심의 Shifting 연습은 제5포지션을 완전히 익히기 전에 하이포지션을 향해 올라가는 왼손의 팔꿈치의 느낌과 같은 손가락으로 이동할 때 힘을 주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

<악보 14> 의 1번의 두 번째 마디부터 제5포지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 시 팔꿈치가 악기 몸통에 닿으면 안 된다. 첫째마디 마지막 음인 ‘미’가 끝날 때 쯤 왼손 팔꿈치는 살짝 들고 제5포지션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제5포지션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엄지와 손가락 1, 2, 3번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악보의 조표와 음정 간격을 잘 보고 손가락 사이를 벌려야 한다. 4마디와 5마디를 보면 ‘시’와 ‘도’는 반음사이기 때문에 2번, 3번 손가락이 가까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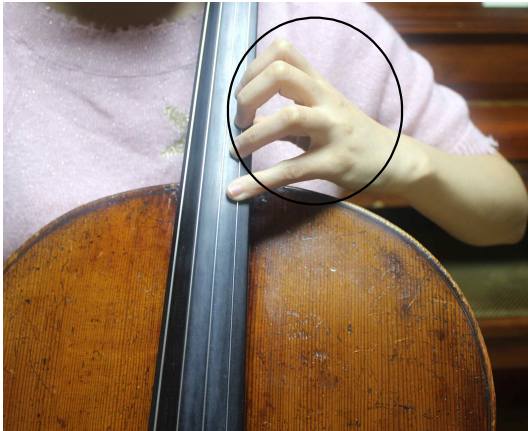
<악보 14>

제4포지션 → 제5포지션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two staves in 6/8 time.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and the second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The notes are: G4, A4, B4, C5 (first staff); D5, E5, F5, G5 (second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by numbers 1, 2, 3, and 4 above the notes.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repeat sign.

세 번째는 제5포지션부터 제7포지션으로 가는 Shifting 연습이다. 우선 제5포지션은 엄지가 첼로 목을 가장 편하게 받치고 있는 포지션이다. 제5포지션에서 제7포지션으로 넘어갈 때 왼손의 손 모양도 중요하다. 움직일 때 첼로 목 뒤에 받치고 있던 엄지가 지판으로 올라가는데 하이포지션으로 올라갈수록 왼손 팔꿈치는 왼손 손목이 꺾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야하고 첼로 왼쪽 몸통에 닿지 않아야 한다. <사진 3>을 보면 첼로 목을 받치고 있는 엄지손가락의 모양은 동그랗게 유지 되어야 하고 목 뒷부분에 살짝 엮어 놓고 힘을 빼야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이 원활하게 이동 할 수 있게 된다.

<사진 3>



앞모습: 왼손 손바닥이 악기에
닿지 않아야한다



뒷모습: 팔목이 평평해야하고
엄지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야한다

<악보 15>에 나와 있는 제5포지션과 제7포지션까지 이동을 할 때에는 세 손가락을 이용하여 음을 잡는다. 제5포지션 이상으로 가게 되면 1, 2, 3번 손가락이나 1, 2, 4번 손가락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넓히고 Shifting 하여 음을 이동하는데 이 부분에서 세 손가락만을 가지고하는 포지션 연습을 반복해 준다. 손가락 번호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앞, 뒤 음을 잘 살펴 학생들이 찾아보도록 하게 한다.

<악보 15>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The first staff is in G major (one sharp) and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fingerings 1, 1, 2, 2. The second staff is in E minor (two flats) and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fingerings 4, 2, 4, 1, 2, 1. The third staff is in G major (one sharp) and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fingerings 1, 1, 2. The fourth staff is in E minor (two flats) and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fingerings 2, 4, 2, 4, 1, 2, 1. A circled section in the fourth staff is labeled '제 7 포지션'.

그 다음 Lower 포지션에서 High 포지션으로 이동할 때 첼로 목에 걸쳐 있던 엄지가 지판 위로 올라가는데 그 때의 Shifting 연습을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옥타브 하모닉스 음으로 엄지 포지션 Shifting 패턴을 습득하게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왼손 팔꿈치가 High 포지션으로 이동시에 같이 올라가야 할 뿐 아니라 엄지가 정확한 음정 위치에 있어야만 음이 또렷하게 울린다. 팔의 위치는 전 페이지에 나왔던 <사진 3>을 참고 한다. <악보 16>

<악보 16>

1. Shalom

6. Joy to the World

Part Four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Major Scale 과 minor Scale을 짧게 편집해 두었다. 앞에서 습득한 포지션을 다시 생각해 보고 연습을 시작하기 전 기본으로 Scale을 연습하고 곡을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17>

<악보 17>

1. C Major

2. C Minor

지금까지 《Cello City》 교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Cello City》를 사용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은 교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곡 이외에도 여러 시대의 곡이나 쉬운 소나타 부분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습에 더 보충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교사들이나 상급생들이 《Cello City》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보완 할 수 있게 짧은 작품을 편곡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끝맺었다.

2. 《Suzuki Cello School》과 《String Builder Book - Cello》의 간단한 연구

1) 《Suzuki Cello School》

신이치 스즈키(Shinichi Suzuki, 1898~1998)는 일본 출신으로 음악교육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그는 바이올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이올린을 쉽게 접하기 시작하였고, 1920년에 독일 베를린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¹²⁾. 스즈키를 떠올리면 ‘재능 교육’과 ‘모국어’ 접근 방식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스즈키는 어떤 아이들이든 그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길러주는 것은 선생님과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아이가 처음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듯 음악도 똑같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

스즈키의 음악 교육 철학을 정리하면 첫째, 음악 환경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 한다. 스즈키 악보 뒤편에 보면 음악 CD가 있는데 이것은 교본에 있는 곡이 녹음된 것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듣고, 음악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CD를 통하여 아이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며, 언어 환경처럼 음악 역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음악은 반복되는 모방으로부터 학습된다. 음악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언어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들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 훈련 속에서 습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12) 유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백준 저, 현대음악 (P. 83)

13) 음악 교육의 주요 이슈, - 21세기의 이론과 실천- 9장 교수법과 접근 방법 (P. 261)

셋째, 음악을 먼저 귀로 듣고 익혀 연주한 후에 악보를 읽는다. 스즈키는 처음 곡을 시작할 때 악보를 직접 읽기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귀로 음을 익히는 학습을 먼저 한다. 이 방법은 언어를 익히는 방법과 흡사하다. 그 후에 암기를 한 곡을 외워서 연주한 뒤 악보 읽기 공부를 시작한다. 이것은 이미 배운 음악이 시각화가 되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음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즈키 교육에서는 개별적 연습으로 시작하여 집단적 연습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어린아이 일수록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수업을 길게 하지 않으며, 개별적 연습이 완성된 후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중주를 감상하기도 하고 함께 연주를 함으로써 다양한 음악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다섯째, 부모 중 한 사람 특히 어머니가 아이의 레슨을 참관하고 매일하는 연습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 혼자서 선생님 없이 연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보다 3개월 전에 배우면 더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는 참관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악기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어머니의 적극성은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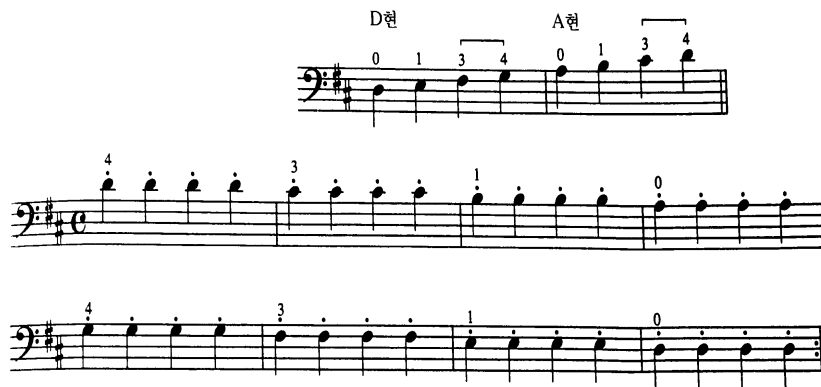
이렇게 스즈키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본을 만들어 교육해 왔다. 바이올린 교본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스즈키 교본은 첼로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었다. 《Werner Violoncello School》(베르너 첼로 교본), 《String Builder Book - Cello》(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O.Ševčík》(셰브직) 등 처음 배울 때 접하는 교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교본은 신이지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스즈키 첼로 교본)이다. 이 책은 1997년에 처음 세광출판사에서 한글로 번역 되었으며, 2009년 개정판이 나왔다. 《Suzuki Cello School》은 1권부터 8권까지로 이

14) 유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백준 저, 현대음악 (P. 84)

루어져 있으며, 1권에는 활 긋기, 기본 포지션 연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시작은 기본적인 줄긋기 연습과 A선과 D선의 간단한 제1포지션 연습이 이루어진다. 제1포지션 연습은 음을 정확하게 소리 내는 법을 연습 할 수 있다.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앞부분을 사용하여 손에 자국이 남도록 현을 꼭 누른다.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은 다섯 손가락 중에 힘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3번 손가락을 누를 시에는 2번 손가락이 3번 손가락과 같이 잡아 힘을 기르고 4번 손가락을 잡을 때에는 3번 손가락을 같이 잡고 4번 손가락에 힘을 함께 실어 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A현에서도 연습한다. 이 연습은 적어도 반 년 동안은 한음씩 소리를 내고 현을 멈추는 연습 할 것을 저자는 권장한다.¹⁵⁾ <악보 18>

<악보 18>



15) 스즈키 첼로 교본 제1권 Pg. 7

간단한 포지션 연습이 끝나면 바로 <악보 19>에 나와 있는 <작은 별 변주곡>으로 넘어간다. 익숙한 음을 통하여 음악을 배울 때 모국어처럼 배워야 된다는 신이치 스즈키의 철학처럼 처음 배우는 리듬에 한글 단어를 넣어 입으로 불러보면 쉽게 리듬 익힐 수 있다. 여러 가지 리듬 밑에 짧은 단어와 의성어를 넣어 리듬을 습득하면 아이들이 쉽고 흥미롭게 리듬 연습을 할 수 있다.

<악보 19>

A

자동차가 빵빵 자동차가 빵빵

B

↓이 심표에서는 박수 친다.

사냥 쾅 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권을 마친 후 2권에서는 제2포지션을 시작으로 손가락의 이동범위가 조금씩 확장된다. 활 테크닉 또한 한 활에 두 개 이상의 음을 잇는 Slur(슬러), Staccato(스타카토) 등 여러 가지의 활 테크닉을 알려주고 곡에 적용시킨다. 3권에서는 제3포지션부터 제7포지션까지의 곡이 나오고 간단한 포지션 연습도 첨가되었다. 3권까지는 바이올린과 같은 곡을 사용한다. 4권부터는 첼로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은 첼로 소나타도 포함되어있다. 이 부분 마지막에서 가온음자리표가 나오는데 완벽히 습득 해야지만 다음 진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권에서도 여러 곡들이 나와서 앞 권수에서 습득하지 못한 테크닉들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6권의 경우에는 첼로만이 갖고 있는 엄지 포지션의 곡들이 소개된다. 6권까지 보면 첼로를 연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을 배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7, 8권에서는 여러 곡들을 연습하면서 더욱 더 기술들을 연마한다.

《Suzuki Cello School》 뒤편에는 그 책에 들어있는 음악이 CD에 들어있다. 언제든지 듣고 연습할 수 있으며 곡을 귀에 그 음을 익혀서 연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악보 뒤편에 피아노 반주 악보도 포함되어 있어 지도자는 개인 악기 또는 피아노로 아이와 중주 연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서 흥미를 더욱 독려 할 수 있도록 한다.

《Suzuki Cello School》에는 악기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부모도 아이의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 지도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후에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연습함으로써 진도를 좀 더 빠르게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String Builder Book - Cello》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1960년 사무엘 아플레바움(Samuel Applebaum)이 집필한 현악기 교본으로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집필한 현악기 교본이다.¹⁶⁾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교수 방법은 처음 악기를 배울 때 활을 사용하는 오른팔의 힘을 빼고 손, 손목, 팔, 팔꿈치, 어깨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고 팔 전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오른팔은 어깨의 연결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¹⁷⁾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총 10권이 있으며, 5권은 첼로의 기초적인 부분을 연습하고 나머지 5권은 기초 연습곡, 포지션 연습, 오케스트라에 도움이 될 만한 연습곡 그리고 이중주 악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본의 특징은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짧고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많아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연습곡들은 듀엣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하거나 흥미를 잃어 버렸을 때 지도자가 함께 연주함으로써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연주를 통해 화합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다. 처음 앙상블을 접해보는 학생들은 큰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상승한다. 시작부터 듀오를 하는 것은 학생이 리듬이나 음정이 헛갈릴 수 있으니 선생님은 학생이 악보를 충분히 익힌 뒤 연주를 같이 해 주어야 한다.¹⁸⁾

《String Builder Book - Cello》의 1권에서는 첼로의 구조와 활의 구조

17) 최승희 “초급과정 첼로 교재의 비교 연구: 스키와 스트링빌더 1권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8) 스트링빌더첼로교본 S.아플레바움 저, 서울바로크합주단 음악감독 김민 감수- 삼호뮤직 출판사 - 감수자의 글

등 악기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익히고 개방현을 길게 갖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학습해 나아간다. 긴 음을 연습 할 때 학생들의 활 잡는 손 모양이나, 악기를 잡은 자세를 자주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어야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악보 20>

<악보 20>

D현의음

A현의음

G현의음

C현의음

박자맞추기 1 2 3 4

개방현 연습을 하고 난 뒤 제1포지션부터 소개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음표나 박자길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음악 이론을 점진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D선, A선, G선 순서로 배워나가며 익숙한 멜로디를 통하여 음을 눈으로 다 익히지 못 하더라도 앞에서 음의 길이를 연습하면서 음정을 익혔기 때문에 곡을 조금 더 쉽게 연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반복 학습을 통하여 음정과 음이름을 익히기에 아주 좋다. 2권부터는 C장조 음계를 시작으로 조가 바뀌면서 간단한 Scale을 알려준다. Scale에 맞는 곡들로 묶어져 있어 조성을 익히고 여러 리듬과 기본적인 활 테크닉을 설명해준다.

1권과 2권을 끝내면 제1포지션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진도이나 많은 반복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음정의 정확성과 왼손의 힘을 길러서 정확한 음정 짚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계속적인 반복 학습에서 중간에 뛰어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두 교본에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난 뒤 3권에서는 제2포지션을 시작으로 곡의 난이도와 음표가 많아지며 점차적으로 제3포지션, 제4포지션을 익힐 수 있도록 저자는 구성하였다.

4권과 5권에서는 앞에서 배운 포지션들을 심화 학습하면서 그 테크닉에 맞는 곡들이 좀 더 길어진다. 1권부터 5권까지의 악보들은 중간 부분에 이중주로 이루어져있어 아랫부분은 선생님이 연주하고 윗부분은 학생이 연주하면서 이를 통하여 수업의 능률과 악기에 대한 흥미를 한 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반주가 없는 부분은 피아노 악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이 활용하면 좋다.

이 책은 <악보 21>처럼 연습곡의 길이가 짧아 초보자들이 접하기에 쉽고 끝까지 연주 할 수 있으며 짧은 곡으로 반복 연습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이라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곡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긴 곡을 접하면서 다시 적응을 해야 할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음계를 배우고 같은 음계의 곡들을 선별하여 반복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은 손가락의 위치와 줄긋기를 빠르게 익힐 수 있고 다양한 곡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

<악보 21>

A 선상의 멜로디

우주선 F. 볼파르트

애완동물 가게

벼꾸기

이 책 안에는 100곡 이 상의 곡들로 묶어져 있어 학생들이 여러 곡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무조건 음을 외어서 하는 연습이 아니라 줄긋기, 포지션 연습, 간단한 음악이론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습득해 나아가는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첼로에 대해 알려주는 교본이다.

3.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의 총괄적 분석

지금까지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세 권의 교본은 각각 모두 첼로 입문 학생들을 위해서 쓴 교본으로 처음 첼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와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 이 세 교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헬가 위놀드는 첼로 전공으로서 첼로의 중점에서 집필된 교본이지만 신이치 스즈키와 사무엘 아플레바움은 바이올린 중점으로 집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는 첼로 교본이기는 하지만 바이올린의 테크닉을 기반으로 포지션이나, 손가락 번호 등 첼로를 연주 할 때 맞지 않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는 처음부터 첼로를 기반으로 한 교본이기에 첼로의 특성을 잘 살려서 포지션 이동 연습이나, 첼로의 가온음자리표, 엄지 포지션 연습 등 첼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테크닉을 더욱 세부적으로 익힐 수 있다.

첼로를 입문하는 한국 학생의 부모님들은 신이치의 스즈키 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어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을 선호하며 첼로 지도자들 또한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많이 알려진 노래 중심의 곡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첼로에 대해 쉽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음악도 언어 배우듯이 해야 한다.’ 라는 신이치 스즈키의 말에 따라 리듬에 의성어를 집어넣어 아이들이 더욱 쉽게 리듬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악 CD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외에도 들으면서 곡과 가까워 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음정을 눈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악보에 찍어져 있는 손가락 번호를 통하여 음정을 손과 귀에 익혀 나간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세부적인 이론 없이 곡만 연습하는 것은 좋은 방법만이 아니다. 또한 짧은 리듬들이 많기 때문에 테타시 연습이나 음을 울리게 연습하는 활 굿기 연습이 부족하다. 《Suzuki Cello School》 중간에는 곡에 나오는 새로운 테크닉을 간단하게 익힐 수 있도록 나와 있지만 4권부터는 짧은 첼로 소나타와 전문적인 첼로 곡으로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테크닉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Suzuki Cello School》 단독으로만 첼로 테크닉에 대하여 더 깊숙이 배우기는 어렵다.

요즘 시대에 증가하는 부모들의 맞벌이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예술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즈키가 제일 강조하는 부모 참관 수업과 음악 CD를 매일 들려주는 일은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음악을 가까이 접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손가락 번호가 악보에 써져있음으로 음이름 자체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첼로의 가온음자리표 연습이나 포지션 이동, Scale 연습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Suzuki Cello School》 이 책 한 권으로는 세부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를 같이 병행하면 좋다. 왜냐하면 《String Builder Book - Cello》 교본은 《Suzuki Cello School》과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기반으로 만든 교본이기는 하나 점차적인 학습 방법으로 음이름과 음정, 기본 활 쓰기 등을 하나씩 익혀 나갈 수 있어서 악보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중간 마다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중주곡들도 있어서 학생이 지루함을 느낄 때쯤 다시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반면 《String Builder Book - Cello》에 나온 곡들은 아이들에게 덜 친숙한 곡들과 긴 음을 연습하는 부분이 많아 지루함을 금방 느끼고 긴 음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곡이 더 익숙한 《Suzuki Cello School》을 같이 수업하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한 첼로 수업이 될 것이다. 처음 배우는데 필요한 악보가 《Suzuki Cello School》와 《String Builder Book - Cello》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악보만 병행해도 좋지만 이 두 교본은 모두 바이올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첼로를 연주 할 때에 필요한 포지션 연습이나, 테너 보표, 엄지 포지션 연습이 부족하다. 첼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O.Ševčík》(세브직)이나 《Popper》(포퍼) 등의 연습곡 책들도 많이 있지만 입문자와 비전공자가 연습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의 책이다. 그러므로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는 전공이 목적인 아니지만 첼로에 대해서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나 첼로를 처음 입문하는데 있어 기본기를 다지려는 학생들이 보고 연습하면 더욱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본 교본은 첼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첼로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탄탄히 다질 수 있다. 간단한 C Major(다장조) Scale을 시작으로 C, G, D, A선을 차근차근 줄긋기 연습을 하면서 배워 나간다. 긴 음 연습과 짧은 음 또는 여러 리듬 연습을 병행하면서 익혀 나간다. 그리고 악보에 손가락 번호나 악상기호, 셈여림 등이 쓰여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상상해 보고 여러 방향으로 연주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 같은 곡의 멜로디를 포지션을 다르게 하거나, 가온음자리표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 <악보 22>

<악보 22>

12.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제 1포지션 2번 손가락 연습



Musical score fo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n bass clef, 3/4 time, 1st position, 2nd finger exercis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3.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가운뎃자리표 연습



Musical score fo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n bass clef, 3/4 time, 3rd position, middle finger exercis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3.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엄지 포지션 연습



Musical score fo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n treble clef, 3/4 time, thumb position exercis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그리고 《Suzuki Cello School》에서 4권으로 올라가면 첼로 소나타, 콘체르토 등이 나오는데 엄지 포지션을 연습하기에는 전공자들이 하는 연습 교본으로는 입문 학생들에게 버겁다. 그래서 《Cello City》에서는 Shifting 연습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엄지 포지션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긴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쉽게 엄지 포지션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Cello City》에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첫째, 책이 다소 두꺼워 초보자가 처음 접하기에는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테크닉 연습을 4 Part로 나누어져 있어 책을 다운받을 때 각 파트별로 분리해서 연습 할 수 있게 표시를 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Part One의 경우에는 초보자가 혼자서도 쉽고 유용하게 연습 할 수 있지만 Part Two는 엄지 포지션과 가온음자리표로 진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Part Two만으로는 Lower 포지션 연습이나 기본적인 활 쓰기 연습을 연마하기에 부족하다. Part Two를 시작 할 때에는 기본적인 가온음자리표 보는 연습을 《Cello City》로 하고 엄지 포지션 포함 다른 부분의 포지션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는 《Suzuki Cello School》과 병행 한다면 《Cello City》에서 배운 기본적인 테크닉을 《Suzuki Cello School》곡에 적용함으로써 점차적인 연습을 통해 학생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셋째, 포지션 연습을 할 때 《Cello City》의 연습곡 길이가 조금 길어서 버거워 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연습곡의 길이가 짧은 《String Builder Book - Cello》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포지션 연습을 세부적으로 연습하면 곡을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연습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짧거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Cello City》는 맨 앞 쪽의 간단한 설명 말고는 각각의 포지션이나 곡을 연습하기에 앞서 연습 방법이나 주의 사항 등이 없다. 그래서 초보자가 혼

자 연습하고 복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보충 설명이 있거나 어느 정도 첼로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더 나아가 각 파트와 테크닉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간단한 안내가 첨부된다면 학생들이 첼로를 공부하는데 더욱 유익한 첼로 교본이 되겠다.

첼로 입문 학생을 지도할 때 처음 시작한 포지션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String Builder Book - Cello》 1, 2권과 《Cello City》의 Part One을 통하여 제1포지션을 습득하게 하고 학생이 음정과 음이름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며 익숙해 질 때쯤 《Suzuki Cello School》을 연습한다면 더욱 정확하게 곡을 연주할 수 있고 재미있게 기본 포지션 연습을 익힐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Cello City》의 경우 Part Two에서 엄지포지션이 나오므로 단계가 갑자기 뛰어 넘는다. 그러므로 《Cello City》는 잠시 접어 두고 《String Builder Book - Cello》 3권과 《Suzuki Cello School》 2권을 통하여 기본적인 포지션인 제4포지션까지 짧은 곡들과 긴 곡들로 그 동안 배운 테크닉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마한다. 《Suzuki Cello School》 3권으로 가면 곡도 길어지고 수준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곡에 맞는 기본적인 연습을 《String Builder Book - Cello》 3, 4권과 《Cello City》 Part Four에 나와 있는 손가락 Shifting 연습을 같이 해줘야만 학생들이 《Suzuki Cello School》 3권의 곡들을 편안하게 연주하는데 도움이 된다.

《Suzuki Cello School》 4권부터는 첼로만 사용하는 가온음자리표와 테크닉들이 나오기 때문에 《Cello City》의 Part Two의 엄지 포지션, Part Three 가온음자리표, Part Four Shifting까지 각 곡에 맞는 테크닉을 찾아서 같이 연습시켜 주어야 한다.

이 세 교본의 장점을 살려서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기초가 탄탄한 가운

테에서 어느 곡이든 접했을 때 두렵지 않고 쉽게 악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헬가 위놀드가 제안했듯이 지도자와 부모님들은 특정 책을 고집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권수를 다 끝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학생의 진도속도와 습득력에 맞춰 선생님의 재량과 판단 하에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소개 되지 않았던 첼로 교본 중 제일 최근에 집필된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첼로 교본을 중심으로 초보 입문 교재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Cello City》는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음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낮은 포지션 및 첼로의 기본 테크닉인 엄지 포지션의 연습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첼로 입문 교본으로써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부족한 테크닉 연습을 위한 부분을 선택하여 지도 할 수 있다.

《Cello City》가 다른 교본과 다른 점은 첼로의 연주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본인 반면에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교본은 바이올린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기가 구성되어 만들어진 교본들이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기반으로 한 교본을 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면 첼로에 맞지 않는 손가락 번호나 포지션 연습 등을 세부적으로 익히기에 부족하였는데 첼로가 중점이 되어 만들어진 헬가 위놀드의 《Cello City》 교본은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나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공생만큼 심화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본이다.

《Cello City》는 Part One, Part Two, Part Three, Part Four 이렇게 4 Part로 나누어져 있고 Part One은 입문하는 학생들이 배우기에 충분하나 Part Two부터는 첼로 연주에 있어 가장 특별한 기술인 엄지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으로 중간 단계를 익히고 완벽하게 숙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기본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어떤 곡을 연주 하더라도 방해 되지 않게 연주해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은 긴 음 줄 굵기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반복 위주의 연습과 각 파트별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 혼자 연습하기에 쉽게 구성되어있다. 교본에 나와 있는 곡 자체가 짧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곡 위주로 이루어져있어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지만 많은 반복으로 인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아이들의 귀에 익숙한 동요들로 묶여져 있어 흥미 유발이 되고 연주곡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성된 곡을 연주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 테크닉 연습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테크닉을 연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기본기 위주의 보충 교재가 필요하다.

이 세 교본의 장점과 단점을 취합해 보았을 때 각자의 장점들을 살려서 병행해 나아간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첼로를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기본자세부터 Scale, Shifting, 엄지 포지션 연습 등은 매우 중요하다. 첼로를 기반으로 한 《Cello City》와 수년간 바이올린에 대해서 연구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이치 스즈키의 《Suzuki Cello School》과 사무엘 아플레바움의 《String Builder Book - Cello》을 잘 병행한다면 첼로 입문자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예비교사와 현직 음악교사들을 위한
유아 음악교육의 지침서 , 저 김백준 (현대음악)

「현민자, 첼로를 위한 음계와 아르페지오」 저 현민자, 음악춘추사

「스트링빌더 첼로교본」 제1권-제10권 S.아플레바움 저, 서울바로크합주
단 음악감독 김민 감수, 삼호뮤직 출판사

「스즈키 첼로 교본」 제1권-제8권 신이치 스즈키 저, 세광출판사

「Cello City」 - 헬가 위놀드

<단행본 형태의 논문>

「음악 교육의 주요 이슈」 - 21세기의 이론과 실천- 해롤드 F, 에이블레
스, 로리A, 커스토데로 엮음. 김용희, 정진원, 오지향, 이수지느 박영주, 신
지혜, 정주연 옮김 (음악세계)

<학 위 논 문>

김은수, 「스즈키 , 스트링 빌더, 베르너 교본을 융합한 첼로 지도 방법 연구 -초등 방과 후 학교 입문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김소라,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연구-‘베르너첼로교본’,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 ‘스즈키 첼로 교본’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최승희, 「초급과정 첼로 교재의 비교 연구: 스즈키와 스트링빌더 1권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시욱, 「스즈키 첼로 지도방안 연구 - 스즈키 첼로 지도곡집 1권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스즈키 재능교육 첼로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사 이 트>

<https://www.winoldsmusic.com/about-us> (2018년 10월 22일 저녁 10시)

http://www.suzukimethod.co.kr/sub2_2.php (2018년 10월 22일 저녁 11시)

<악 보>

「스트링빌더 첼로교본」 제1권 S.아플레바움 저, 서울바로크합주단 음악
감독 김민 감수, 삼호뮤직 출판사

「스즈키 첼로 교본」 제1권 신이치 스즈키 저, 세광출판사

「Cello City」 헬가 위놀드 저

<사 전>

「음악 용어 사전」 발행인 박세원, 세광음악출판사 1986

ABSTRACT

A Study on 《Cello City》 of Helga Winold - Comparison of 《Suzuki Cello School》 and 《String Builder Book-Cello》 -

Chang, MinHyung
Instrumental Music Major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Cello City》 by Helga Winold, a new cello instructing book that is not yet published in Korea, to 《Suzuki Cello School》 by Shinichi Suzuki and 《String Builder Book - Cello》 by Samuel Applebaum, two favorites used by cello instructors for beginners.

Helga Winolde is a cellist and instructor who still trains students. She published 《Cello City》 based on the study that she has developed from the 50 years of training students and is focused on fundamental techniques for students. Helga Winolde's 《Cello City》 can be downloaded for free of charge from the Internet site '<https://www.winoldsmusic.com/>' run by Helga Winold, making it easy for anyone to view the material. This book is in one book, but it is divided into four parts. Each part is

constructed to have most necessary technique practiced.

On the contrary, Shinichi Suzuki's 《Suzuki Cello School》, published in 1943 and Samuel Applebaum's 《String Builder Book - Cello》, published in 1960s, are composed of basic techniques, short and long practice pieces centered around violin. Shinichi Suzuki's 《Suzuki Cello School》 is consisted of eight volumes. It is the 4th volume that starts to have cello sonata or concerto sheet music. Samuel Applebaum's 《String Builder Book - Cello》 is composed of ten volumes : five basic exercise books and five deep learning books with orchestral songs and duets.

《Suzuki Cello School》 and 《String Builder Book - Cello》 are two most widely used instruction books in Korea but the most recent 《Cello City》 by Helga Winold is not yet known to Korean instructors and practitioners. So it is the writer's intention to compare 《Suzuki Cello School》 and 《String Builder Book - Cello》 to Helga Winold's 《Cello City》, identify strengths and shortcomings and how they are used to improve cello beginners' skill.